

風景

봄바람을 등진 초록빛바다
쏘다질듯 쏘다질듯 위트롭다.

잔주름 치마폭의 두둥실거리는 물결은,
오스라질듯 한결 輕快롭다.

마스트 끝에 붉은 旗人발이
女人의 머리칼처럼 나부긴다.

※ ※

이 생생한 風景을 앞세우며 뒤세우며
외— ㄴ하루 거닐고 싶다.

——우중충한 五月하늘아래로,
——바다빛 포기포기에 繡놓은 언덕으로

一九三七、五、二九、

풍 경

봄바람을 등진 초록빛 바다
쏟아질 듯 쏟아질 듯 위태롭다.

잔주름 치마폭의 두둥실거리는 물결은
오스라질 듯 한껏 경쾌롭다.

마스트 끝에 붉은 깃발이
여인의 머리칼처럼 나부긴다.

※ ※

이 생생한 풍경을 앞세우며 뒤세우며
외— ㄴ 하루 거닐고 싶다.

——우중충한 오월 하늘 아래로
——바다빛 포기포기에 수놓은 언덕으로

1937. 5. 29.